

2. 동초면 신기리 사람들의 만세운동

순천군 동초면 신기리에 거주하는 전평규(田平奎 : 1876~1949)는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같은 마을의 안용갑(安龍甲), 안응섭(安應燮)과 의논하여 같은 마을의 동지 33명과 함께 표면상 친목을 도모하는 위친계(爲親契)를 만든 다음 그 비밀명칭을 도란사(桃蘭社)라 하였다. ‘도란’이란 이름은 중국 한나라의 유비·관우·장비 3명의 도원결의와 진나라의 뜻있는 문사들이 난정(蘭亭)에서 모임을 갖던 옛일에서 뜻을 취한 것인데 대개 삶과 죽음을 같이하자는 의미였다. 도란사 33명은 다음과 같았다.

전평규(田平奎)·안응섭(安應燮)·박영진(朴榮鎭)·안종귀(安鐘貴)·김창기(金昌基)·강정수(姜正秀)·오영태(吳永泰)·곽인석(郭仁錫)·안규삼(安圭三)·정전표(丁田杓)·안규진(安圭晉)·한철순(韓喆順)·한흥량(韓興良)·김만득(金萬得)·안백순(安伯淳)·안덕환(安德煥)·안담환(安潭煥)·안일삼(安日三)·송이수(宋二洙)·오영연(吳永連)·김오현(金五鉉)·임재성(任在成)·안규정(安圭偵)·김천근(金千根)·신용석(申龍石)·전인채(全仁采)·오일준(吳日俊)·한흥조(韓興祚)·안은규(安銀圭)·안상규(安商圭)·오병귀(吳炳貴)·안용갑(安龍甲)·윤점수(尹點洙)¹⁾

전평규는 다시 안용갑, 안응섭과 함께 위친계원 33명의 단결과 활동으로 일반민중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선동할 목적으로 4월 3일 김천근의 집에 위친계원 안덕환 등 29명을 불러 그들의 그러한 뜻을 알렸으며 그들의 찬동을 얻어 다시 친목계를 조직하였다.²⁾ 필자는 앞서 만들어진 33명의 위친계인 도란사와 달리 여기에서 친목계라는 명목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조직이 바로 2·8사(社)였다고 본다.

현재 동초면 신기리 사람들의 3·1운동과 관련하여 세 비밀결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도란사, 2·8사, 혜지사(惠芝社)가 그것이다. 그러나 거사 후 검거된 인사들이 미리 언약한 대로 법정에서는 그들의 조직이 남부지방 어느 마을에나 흔히 있는, 친목을 위한 위친계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판결문에 위 세 결사의 조직 경위, 조직 일시, 조직원 등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이 세 조직에 대한 여러 글들이 그 자체의 여러 장점을 갖추고 있는데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각각 기술되었다.³⁾

33명으로 위친계를 만들었던 초기에는 도란사라는 명칭이나 33이란 숫자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참여자 모두가 이심전심으로 이 조직에서 담고 있는 민족운동의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활동계획을 논의하거나 독립운동이라는 목표를 합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짐작된다. 위에서 보았듯이, 도란사라는 위친계를 만든 후 4월 3일 김천근의 집에 다시 모였을 때

1) 조선군참모부, 「4월 6~15일 조선소요사건에 관한 상황보고의 건」, 『조선독립운동』I, 김정명 편, 623쪽; 陸軍省, 「(4월 7~12일) 조선의 불온 독립운동의 행동에 관한 건」, 『3·1운동편』1, 국학자료원 편, 179·206쪽.

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3·1운동사(하)』 제3권, 1969, 576·594쪽. 2·8사 결사대 원이란 명칭으로 위 33명의 명단이 서로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위의 33명은 이들 중 일부의 판결문인 1919년 5월 20일, 「大正8년 刑 제469호」와 대조,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덧붙인다면 안진영, 김규석은 33명에 들어 있지 않았다.

3) 1919년 5월 20일, 「大正8년 刑 제469호」. 이때 검속된 인물들에 대한 몇 종류의 재판문서를 기본자료로 삼았다.

에야 조직원들 사이에서 이 조직의 목표가 합의되었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만세시위 계획의 행동대격인 2·8사가 새로이 조직된 것으로 보인다. 이 행동대에는 실제 위친계원 33명 외에도 김규석(金奎錫)·안진영(安鎭榮)이 참가하였다.

4월 8일 신기리 한흥조의 집에서 위친계원 33명과 김규석·안진영 등이 모여, 다음날인 9일 보성군 별교면 별교리 시장에서 장꾼들이 모이는 것을 기회로 삼아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고 이를 서약서로 작성한 다음 참석자들은 모두 여기에 손도장을 찍었다. 이에 따라 그들은 급히 태극기를 만들고 ‘대한독립기’라고 쓴 종이를 준비했다.

4월 9일, 전평규를 위시한 대원들은 별교리에 있는 강역서(姜臆西)의 음식점에서 회식한 후 별교면 장좌리 아랫장에 이르렀다. 전평규는 안용갑, 안용섭과 함께 ‘대한독립기’라고 쓴 종이를 흔들며 장꾼들을 향해 “지금 조선 각지에서 조선독립을 하려는 운동을 성대히 하고 있는 것은 우리와 같은 뜻에서 하는 일이다. 모두들 우리와 같이 조선독립을 절규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려는가?” 하면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자 동행했던 대원들과 군중들이 호응하여 장터는 만세시위장으로 변하였다.

만세소리는 사방으로 퍼졌고 민중들은 흥분과 감격에 쌓여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렸다. 이때 거사 계획과정에서 참여하지 않았던 신기리 사람 신종태(申鐘泰)와 안장내(安牆內)도 시위에 적극 앞장섰다. 헌병과 군인이 몰려들었으나 독립만세의 함성은 쉽게 그치지 않았다. 이날 14명이 검속되었고 수명의 피상자가 났다. 1919년 5월 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내려진 판결문에⁴⁾ 따르면 시위에 가담한 동초면 신기리 사람들 14명에 대한 주문은 다음과 같다.(이하 나이는 1919년 현재)

전인채(22세, 농업)·강정수(33세, 농업)·김만덕(29세, 농업)·한흑량(22세, 농업)·
김규석(39세, 농업)·한철순(34세, 노동)·윤점수(22세, 농업)·곽인석(39세, 농업)·
안진영(34세, 농업)·안덕환(22세, 농업)·오기영(26세)·신종태(36세, 농업):
이상 징역 6월
전평규(45세, 농업) : 징역 10월
안장내(18세, 고용인) : 징역 4월

이상에서 잘 나타나듯 4월 9일 보성군 별교면 장좌리 아랫장에서 일어난 만세시위는 동초면 신기리 사람들, 도란사, 2·8사 대원들이 주도한 것이며 이날 시위에서 검속된 인물들은 한결같이 신기리 사람들이었다. 또한 신종태·안장내 등은 거사 당일 자발적으로 참여한 인물들이다. 검거자들의 신분구성은 노동자와 고용인이 1명씩 있지만 거의 모두가 농업 종사자였다. 연령분포는 20~30대가 대부분이며 지도적 역할을 한 전평규가 45세로 40대에서는 유일하다.

일본의 관헌문서는 4월 9일 신기리 사람들의 만세운동상황을 “보성군 별교, 9일 오후 1시 30분 별교면 별교시장에서 20여 명이 독립만세를 고창하여 12명이 체포되었다.”⁵⁾고 기록하였다.

4) 순천승주향토지편찬위원회, 『순천승주향토지』, 순천문화원, 1975, 72쪽 ; 『만세 60년』, 『현남일보』, 1979. 1. 29 ; 승주군사편찬위원회, 『승주군사』, 1985, 241~242쪽 ; 『탁안향교지』. 한흑량은 한흥량의 오기이다.

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3·1운동(하)』 제3권, 1969, 575~579쪽과 『탁안향교지』 등에는 吳永泰로 되어 있는데 오기영과 같은 인물이다. 판결문에는 특이하게 오기영에 대해서만 직업란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다. 『탁안향교지』에 따르면 安鎬瑩·李秉堃가 서울

이는 이날의 만세시위가 민중들의 대규모 참여를 유도하지는 못했으며, 2·8사 대원들 외에는 신중태·안장내가 적극 참여하였고 기타의 장꾼들은 방관 혹은 소극적 참여에 그쳤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신기리 사람들의 만세시위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검거를 모면한 2·8사 대원들의 주도로 4월 14일에 4월 9일과 같은 별교시장에서 만세운동의 불길이 다시 지펴졌다.⁶⁾ 4월 14일의 운동을 주도한 것은 검거를 모면한 안응섭·안용갑이며, 신기리 사람들을 다시 모아 4월 14일 오전 김천근 집에 모일 것을 연락했다. 이때 모인 사람은 8명으로 김천근·전개표·안규진·안상규·안종원·김창기·안경섭·오일준·안운수·안용갑·안응섭이 그들이었다. 여기에서 잘 나타나듯이 전개표·안종원·안경섭 3명은 도란사나 2·8사에 가담하지 않았던 인물들이다. 이 자리에서 안응섭은 다시 별교장터로 나가 만세를 부르자고 권유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하 조선 각지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있음은 우리의 뜻과 같은 바,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은 누구나 뜻을 합쳐 별교시장에서 독립만세를 불러 민중의 독립사상을 고취, 선동유발하자.

일동은 안응섭의 말에 찬동하고 그날 오후에 바로 닷새 전 만세를 불렀던 보성군 별교면 별교시장으로 나가 거사하기로 결의했다. “그 중에서도 안규삼은 모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왼손 무명지를 베어 태극기를 그렸다.”⁷⁾ 그들은 별교리의 한 음식점에 모여 회식을 한 후 하오 3시경 시장으로 나갔다.

안응섭과 안규진이 미리 준비한 ‘대한독립기’와 ‘순천군(順天郡) 동초면(東草面) 신기리립(新基里立)’이라고 써넣은 태극기를 흔들며(이때 기를 매달기 위해 대나무가 사용되었으며 이 대나무도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곧 헌병들이 달려와 “승강이가 벌어져 … … 처음 안규삼이 붙들리자 그 손에 들었던 태극기가 떨어졌고 안규삼은 다시 그것을 주워들고 나가며 대한독립만세를 목청껏 외쳤다. 안규진이 또 포박되니 이번에는 안은수가 대신 그대로 하고 안은수가 붙들리자 안상규가 대신 태극기를 주워들고 계속 만세를 불렀다.”⁸⁾

이때 체포되어 실형을 받은 인물로 안규진·안은수가 확인되는데 그들은 헌병분견대로 끌려가 구금되었다. 체포를 피한 인물들 중 안상규는 같은 날 오후 6시, 안규진·안은수를 탈환하고자 헌병분견대로 가서 부대 주위에 있는 조선인들에게 미리 감추고 간 태극기를 꺼내 흔들어 보이며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안상규의 이러한 시위성 행위는 그의 단독 거사였으며 곧 체포되었는데, 체포되면서도 조선독립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다.

안상규는 조선이 곧 독립될 것이며 이러한 만세시위는 조선이 독립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는 4월 9일과 4월 14일의 거사에 참여하기 직전인 4월 7일 동초면사무소에서 서기들이 신문을 보며 “만국재판소에서 조선의 독립을 인정했으

손병희 세력의 소식을 오기영에 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로 미루어 그는 직업을 농업이라고 쓸 수 없는 천도교인이나 유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6) 조선총독부 경무국, 「3·1운동 日次보고」, 『3·1운동편』1, 국학자료원 편, 365~366쪽.

7) 이하 4월 14일의 시위상황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각각 내려진 안상규의 판결문인 「大正8年 刑 제499호」, 安應燮 판결문인 「大正9年 刑 제1093호」, 安鏞甲 판결문인 「大正6年 刑 제653호」를 기본자료로 하였다.

8) 재판문서를 비롯한 각종 자료에 나오는 安雲洙는 安銀水와 같은 인물이며 후자가 호적명이다.

며, 각국 식민지는 식민 모국(母國)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법정에서도 그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신기리 사람들의 4월 14일 2차 거사는, 4월 9일 1차 때의 그것에 비해 대중적 참여가 더 낮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제 헌병대 일차(日次)보고서에 이날의 시위상황에 대한 보고가 완전히 누락되어 있으며, 이날 만세시위 참여자 중 체포되어 실형을 받은 사람이 5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간단한 신상과 형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안상규(24세, 농업)·안은수(28세, 농업)·안규진(22세, 농업) : 이상 징역 8년
안응섭(34세, 농업)·안용갑(29세, 농업) : 이상 징역 1년

실형을 받고 징역에 처해진 신기리 사람들은 출옥 후 거의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며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들의 3·1운동 참여는 이후 전개된 갖가지 민족운동과 연계되지 못했던 것이다. 다만 안덕환은 1920년 출옥한 후 만주로 가서 홍범도 휘하에 투신, 1920년 10월 청산리전투에 참여하였다. 홍범도에게 안덕환을 소개한 사람은, 동향(同鄉)인 낙안면 사람이자, 경술국치를 전후하여 일진회(一進會)를 공격하는 등 낙안지역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던 이병채(李秉琛)였다. 일제가 청산리전투에 대한 보복작전으로 자행한 ‘경신참변(庚申慘變)’으로 독립군부대는 흑룡강을 건너 러시아 자유시(현재의 지명은 스보보드니)로 들어갔고, 1921년 6월 이곳에서 이른바 자유시사변(흑하사변)이 일어났다. 여기에서 자유시사변을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때 안덕환은 무장해제를 당한 후 귀향하였다.⁹⁾

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3·1운동사(하)』 제3권, 577쪽.

